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 뿐입니다
		배포일자	2023년 3월 29일(수) 총 5매	
담당 부서	환경안전과	담 당 자	• 환경보건팀장 이국화 ☎440-3711 • 담당자 현승주 ☎440-371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14시 30분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환경보건시료은행, 경서동 환경연구단지에 개소

- 인체시료 저장 및 연구 활성화로 환경보건연구 도약 기반 기대 -
- 유정복 시장, “국민 건강을 한 단계 높이는 마중물 역할” 당부 -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3월 29일 서구 경서동 환경연구단지에 인체유래물 시료 연구시설인 ‘국가환경보건시료은행’ 개소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등 관계자 및 환경보건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시료은행은 국가에서 수행하는 환경조건 조사연구를 통해 수집되는 인체유래물 생체시료(혈액, 소변)의 장기간 안정적인 초저온 상태로 저장하고 활용하기 위한 시설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운영한다.

인체유래물은 생명윤리법에 따라 인체에서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 세포, 혈액, 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 단백질 등을 말한다.

시료은행은 국가 환경보건 연구 과정에서 수집되는 약 250만 점의 생체시료를 초저온 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 시료 저장실과 시설을 관리·제어하는 모니터링실, 데이터 분석실 등 총 16실로 지상 2층, 2,032㎡ 규

모를 갖췄다. 총 76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2020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약 3년에 걸쳐 완성됐다.

시료은행의 본격적인 운영됨에 따라 그간 환경보건 연구를 위해 체내 유해물질 노출확인 및 건강영향 규명 등의 목적으로 수집된 인체유래물(혈액, 뇨)*은 시료은행으로 이전, 통합 관리된다.

*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사업('15~'36)과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09~현재) 등에서 약 10만명으로부터 수집된 것으로 총 100만 여점

질병 연구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규모 보건시료은행은 일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환경성질환 연구 등 환경보건을 목적으로 한 국가환경보건시료은행의 개소는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유정복 시장은 축사를 통해 “생체시료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저장이 가능한 환경보건시료은행의 개소는 큰 의미가 있고, 국민 건강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마중물의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면서, “인천시도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필(必)’ 환경시대를 열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안전도시 인천’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5시) 종료 후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 붙임 1. 국가환경보건시료은행 개요 (국립환경과학원 제공).
2. 개소식 일정 (국립환경과학원 제공).
3. 질의응답 (국립환경과학원 제공). 끝.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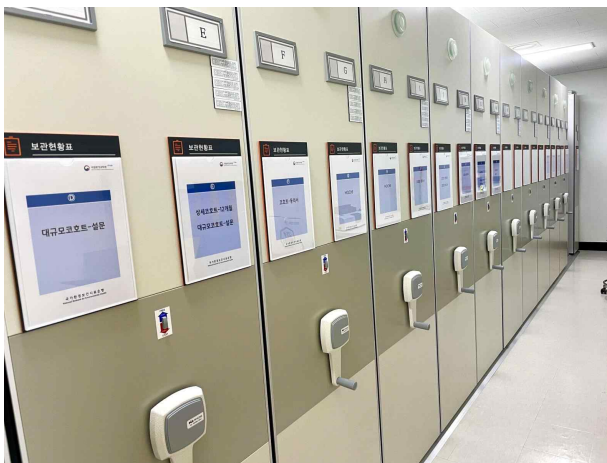
- (목적) 환경보건 연구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생체시료의 장기보관 및 환경성질환 연구를 위한 전문 연구시설 건립
- (위치) 인천 서구 환경로 42(국립환경과학원)
- (규모) 건축연면적 2,032m²(지하1층, 지상2층)



< 국가환경보건시료은행 전경 >



< 생체시료 보관용 기계식 냉동고 >



< 2층 자료보관실(설문지, 건강기록지 등) 내부 >



< 생체시료의 초저온 보관을 위한 액체질소 저장탱크 >

- (일시·장소) '23. 3. 29.(수) 14:30~15:50 / 국가환경보건시료은행 등(인천 서구)
- (주요행사) 경과보고, 환영사, 축사, 테이프커팅, 현판식 및 기념식수 등
- (참 석 자) 환경부 장관, 인천광역시장, 국립환경과학원장, 국립환경
인재개발원장, 국립생물자원관장,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인천
광역시 서구청장, 관련학계, 산업계 등 100여명
- (주 제) “미래 환경보건 연구의 중심에 국가환경보건시료은행이 있습니다”

□ 주요 일정

구분	시 간		행사내용	비 고
식전행사	14:30~14:55	25'	· 내·외빈 영접 및 환담회	대회의실
	14:55~15:00	5'	· 등록 및 장내 정리 등	
본 행 사	15:00~15:05	5'	-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15:05~15:10	5'	- 주요 내빈 소개	
	15:10~15:13	3'	- 경과보고	환경보건연구과장
	15:13~15:16	3'	- 기념 영상시청	
	15:16~15:19	3'	- 축사	환경부장관
	15:19~15:22	3'	- 축사	인천시장
	15:22~15:25	3'	- 축사	인천 서구청장
	15:25~15:28	3'	- 영상 축전(국회의원 및 학계)	
	15:28~15:32	4'	- 마무리 및 연계행사 안내	
연계행사	15:33~15:50	18'	· 테이프 커팅식, 현판식 · 시료은행시찰 · 기념식수	장관 및 주요내빈

1. 인체유래물이란 무엇인가요?

- 생명윤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인체에서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 세포, 혈액, 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 단백질 등을 말합니다.

2. 국가환정보건시료은행의 건립 목적은 무엇인가요?

- 국가에서 수행하는 환정보건 조사연구를 통해 수집되는 인체유래물 생체시료(혈액, 소변)의 장기간 안정적인 초저온 상태로 저장하고 활용하기 위해 건립하였습니다.

3. 국가환정보건시료은행 개소의 의의는 무엇인가요?

- 그간 개별 환정보건 조사연구사업에서 임시 저장·보관 중인 대량의 생체시료 이전 및 통합관리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 시료은행은 대규모 생체시료와 개인의 질병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저장·관리하며, 보관된 시료는 향후 환경성질환 규명 등 환정보건 연구에 활용됩니다.
- 질병 연구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규모 보건시료은행은 일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환경성질환 연구 등 환정보건을 목적으로 한 국가 환정보건시료은행의 개소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